



덴마조와 고구라 1861 년

이 부근에는 덴마조와 고구라가 있었습니다. 덴마조란 역참마을의 역할 중 하나인 말과 마부를 갈아 주는 곳이고, 고구라란 납부 전의 연공미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였습니다.

제공: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